



건설협회 도회 실적신고 결과보고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최근 춘천 후평동 바이오산업진흥원 BIO-2동 세미나실에서 실적신고 결과보고와 함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웃돕기 성금 쾌척 (주)경동(대표:조진수)은 삼척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 희망 2018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도·18개 시군 내년 예산 14조 2827억

올해 대비 9601억 증가
평창군, 도내 유일 감소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내년 도당초예산이 올해보다 7.8% 증가한 14조 2827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내년도 도 분청(5조 6744억원)과 18개 시·군(8조 6083억원)의 당초예산 규모는 14조 2827억원으로 올해(13조 3226억원)보다 7.8%(960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시군 중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도 분청과 17개 시·군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춘천시는 22.9% 증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도 도 분청 예산은 5조 6744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5조 6498억원)보다 246억원(0.4%) 증가했다. 시·군 중에서는 춘천시와 원

주시가 처음으로 예산 1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춘천시의 내년도 예산은 1조 1954억원으로 올해(9730억원)와 비교, 22.9% 늘었다. 원주시는 1조 1282억원으로 올해(9648억원)보다 17.0% 증가했다. 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의 내년도 예산은 8553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정선군도 8.1% 증가, 3892억원 규모다.

반면 평창군의 내년도 예산은 3544억원으로 올해(3625억원)보다 4.5% 감소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각종 시설사업이 마무리돼 올림픽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예산 하위 지역은 양양군(2577억원), 화천군(2891억원) 순이었다. 박지은·지역종합 ▶ 관련기사4면



경동 성금 1000만원 기탁 경동(대표 조진수)은 최근 삼척 도계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의 기탁했다.

도 5조6744억 3년 연속 5조원대, 춘천 증가율 최고

올림픽 개최지 평창군 81억 ↓
대회 시설 완료 관련 예산 감소
전체 예산 추경 후 16조원 전망

평창군을 제외한 도 분청과 17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은 14조 282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13조 3226억원)보다 9601억원 증가했다. 반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만 81억원(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억원 증액된 3244억원, 상수도공기특별회계를 비

2018·2017년 강원도 당초 예산 단위/억원

구분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비율	구분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비율
도분청	5조6744	5조6498	0.40%	영월군	3856	3500	10.20%
춘천시	1조1954	9730	22.90%	평창군	3544	3625	-4.50%
원주시	1조1282	9648	17.00%	정선군	3892	3599	8.10%
강릉시	8553	7584	12.80%	철원군	4001	3423	16.90%
동해시	3636	3368	8.00%	화천군	2891	2604	11.30%
태백시	3139	3033	3.50%	양구군	3067	2674	14.70%
속초시	3118	2855	9.20%	인제군	3857	3382	14.00%
삼척시	4950	4580	8.07%	고성군	2950	2698	9.33%
홍천군	5016	4503	8.97%	양양군	2577	2542	1.35%
횡성군	3800	3380	12.40%	합계	14조2827	13조3226	7.76%

롯한 특별회계가 84억원 감액된 3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1억원이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 감소는 올림픽 성공 개

최를 위해 준비된 각종 시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림픽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도 분청의 내년도 예산

은 5조 674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5조 6498억원)보다 246억원 늘었다. 2016년 당초예산 이후 3년 연속 5조원대를 기록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림픽 성공개최와 올림픽 이후 미래강원을 선도할 신(新)전략사업 발굴, 민생예산 투자확대에 중점을 뒀다. 각 시·군 중에서는 춘천시의 예산 증가율이 22.9%로 가장 높았다. 내년도 예산은 1조 1954억원으로 올해(9730억원)보다 2224억원 증가했다. 이어 원주시가 올해보다 17.0% 늘어난 1조 1282억원 규모다.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시의 내년도 예산은 8553억원으로 올해(7584억원)보다 12.8% 늘었다. 군 지역 중에서는 철원군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내년도 예산은 4001억원 규모

로 올해(3423억원)보다 16.9% 증가했다. 이어 △양구군 14.7% △인제군 14% △횡성군 12.4% △화천군 11.3%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재정상황이 가장 열악한 지자체는 양양군으로 올해 이어 또 다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양양군의 내년도 예산은 2577억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2542억원)과 비교해 1.4% 소폭 증가에 그쳤다. 도분청을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14조원대 규모이지만 추경 등을 거치면 최종 1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강원도는 내년도를 지방채 미발행 원년의 해로 삼고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 2022년 채무 제로화 달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지은

내년 상반기 건설경기 위축 우려 SOC 조기집행 강력하게 추진한다

공모·발주·계약 등 철저히 관리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실물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강력한 SOC(사회기반시설)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와 신DTI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상반기 건설, 실물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 및 SOC사업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앞서 정부는 1분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포함, 상반기에만 전체의 76% 예산을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SOC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적 집행목표를 제

시할 예정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 조기집행을 추진했던 올해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1분기 전체 SOC 예산의 31.2%, 상반기 59.4%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낙찰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성 지급률을 높이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까지의 재정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90.4%로 재정 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원 중 263조3000억원의 집행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최소 3% 이상을 기록해왔던 예산 불용률도 올해는 2%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도 연초부터 속도감있는 재정 집행과 함께 신속한 공모 및 발주, 계약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불용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권기자 skbong@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6.4兆... 전년 대비 2.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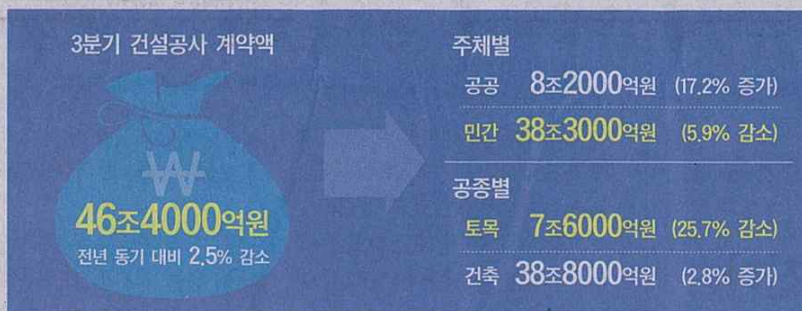
올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4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2% 증가한 반면 민간이 38조3000억원으로 5.9%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했고 건축은 38조8000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300위 기업이 일제히 줄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고 51~100위



기업은 3조2000억원으로 4.5%, 101~300위 기업은 4조1000억원으로 9.3% 줄었다. 반면 301~1000위 기업은 4조5000억원으로 6.9% 증가했고 그 외 기업도 15조9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을 보면 수도권

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4조9000억원이었고 비수도권이 14.8% 감소한 21조5000억원이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계약액은 14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박경남기자



강원도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권역별(원주, 강릉, 동해, 춘천)로 ‘2017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는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 실태 조사 동향 및 등록기준 설명도 진행됐다.

발주 임박 물량 어떤 게 있나

국립극장 해오름, 46년만에 리모델링

조달청, 100억 이상 11건 계약 접수
294억대 전남 도립미술관 등 대기

25일 나라장터 계약요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주(12.18~12.22) 조달청에는 총 예산 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11건에 대한 계약 요청이 접수돼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물량은 2건이다.

300억원 이상 주요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총공사금액 2269억9700만원) 발주가 임박했다.

‘국립극장 해오름 리모델링 공사’(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456억8100만 3000원)도 입찰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공사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개관 46년 만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무대·객석·로비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이다. 앞서 열린 설계 공모에서는 이가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돼 수행했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공사’(전남개발공사·294억9092만1000원)도 발주가 임박했다. 이 공사는 전남 광양읍 옛 광양역사 1만7000㎡ 부지에 연면적 1만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미술관을 짓는 것이다.

전시실을 비롯해 교육시설, 어린이 체험 전시, 편의 공간 등을 갖춘 예정이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경상북도 김천시·293억6630만5000원)는 부지면적 9만9200㎡, 건축면적 3870㎡, 연면적 8893㎡ 규모로 화장로 4기와 봉안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유족대기실, 식당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충북화사 건립사업 건축공사’(충북 개발공사·187억3618만원)도 계약요청이 접수됐다. 이 공사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74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면적 9528㎡ 규모의 생활관을 짓는 것이다.

더불어 부산지역 환경정비사업인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285억7395만원) △남강 서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244억 3800만원)도 발주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수초등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179억 5971만6000원) △제2송정초등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울산광역시교육청·170억 4643만1000원) △국지도49호선 포진~문막 도로 건설공사(강원도·142억4491만 4000원) △놀이숲 조성사업(경기도 동두천시·121억1514만5000원)이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